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 壹部(朝夕刊)金五錢 壹個月先金壹圓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送料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一行 壹圓 特別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二 朝鮮日報社

社說

歐洲의 政治關係(下)
保障條約成立으로 一時的安定을 보아

一

英國이 獨逸의 提議에 對하야 贊意를 表하는 것은 勿論 事理明白한 일이거니와 佛國側으로서도 自己가 獨逸을 侵略할 目的을 가지고 明言할 수 업는 以上 그에 對하야 反對할 何等의 口實이 업섯다 그리고 또 佛國自體로 보더라도 그러케 하는 것이 참으로 安全保障임을 아니 깨달을 수 업다 敵으로 하여금 恒常 切齒腐心하게 한다면 엇지 마음을 노흘 수가 잇스랴? 俗諺에 『열 사람이 직히더라도 한 盜賊을 못 직힌다』는 것과 가티 아모리 佛國이 準備를 完全히 한다 하더라도 獨逸國民의 徹天之恨을 除去치 안는다면 決코 佛國은 安全하다고 할 수 업슬 것이다

二

그러나 佛國은 獨逸의 西部國境에 關한 提議만으로는 滿足하지 아니하고 保障條約의 範圍를 東部國境에까지도 延長하려고 하엿다 그것은 佛國은 그 保護圈內에 잇는 波蘭과 『체크, 슬로바키야』 兩國의 領土安全을 保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對하야는 獨逸이 反對하는 것은 勿論이거니와 英國도 好意를 表하지 아니하엿다 英國은 『라인』河地方의 紛糾를 防止하고 따라서 佛獨間의 平和를 維持하는 데 對하야는 痛切한 利害를 感하지마는 獨逸의 東部國境問題에 對하야는 그다지 切實한 利害를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獨逸은 『실레시아』地方의 一部를 波蘭에 빼앗기고 東普魯西가 波蘭回廊으로 因하야 獨逸本國과 隔絶되여 잇는 이 東部國境의 不自然한 狀態는 改訂하기를 一刻도 忘却지 못하는 바이니 이것을 그대로 保障한다는 것은 獨逸로서는 참을 수 업는 일이다

三

그럼으로 佛國도 그 問題를 固執하지 아니하고 그 代身에 獨逸의 無條件國際聯盟加入을 極力 主張하엿다 그러나 이 國際聯盟加入問題에 對하야는 獨逸國內의 議論이 매우 紛紜하엿다 卽 獨逸이 國際聯盟에 加入하는 것은 또다시 한번 저 不合理한 『벨사이유』平和條約을 承認하는 것이 되겟슴으로 非難하는 소래가 매우 놉핫스나 그러나 獨逸은 畢竟 多少의 保留를 하고 國際聯盟에 加入하기로 하엿다 그리하고 東部國境에 對하야는 獨逸과 『체크, 슬로바키야』間에 仲裁裁判條約을 締結하고 獨逸과 波蘭間에 仲裁裁判條約을 締結하고 또 이 두가지 條約을 保障하는 二個宣言書도 調印되엿다 그리하야 佛獨間의 不安의 種子를 除去하고 또 獨逸의 東隣에 對한 關係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端緖를 開하고 獨逸을 國際聯盟內로 引入하야서 獨逸을 戰敗國의 地位에 두고 困辱하던 代身에 그에게 國際問題에 對하야 平等의 發言權을 賦與하기로 하엿다

四

그리하야 歐洲는 政治上 安定을 보게 되엿다 昨年四月九日에 『또스』案이 發表되여 八月十六日의 倫敦協定을 招來하야 歐洲의 經濟關係를 安定식혓더니 今年二月九日의 獨逸政府의 提議에 依하야 十月十六日에 『로카르노』安全保障條約을 成立식혀 歐洲의 政治關係의 安定을 보려고 하니 九日과 十六日은 참으로 歐洲國際關係上에 重大한 因緣이 잇는 것을 생각한다 昨年의 『또스』案으로 因하야 經濟關係의 安定을 보앗고 今年의 保障條約으로 因하야 政治關係의 安定을 보게 되여 歐洲各國間에는 歐洲合衆國形成의 議論까지도 發表되게 되엿다

五

이와 가티하야 歐洲의 政治關係가 安定되게 되고 獨逸이 國際聯盟과 『쏘베트』聯合과의 사이에 잇던 獨逸爭奪戰은 終結을 告하엿다 保障條約會議中에 勞農露西亞外相 『치체린』氏가 伯林가서 만히 活動한 것은 『쏘베트』聯合의 獨逸의 國際聯盟加入을 阻止하려고 하는 最後의 努力이엿섯다 獨逸이 萬一 國際聯盟에 加入하면 今月十二日에야 겨우 調印된 露獨間의 通商條約이 無效되리라는 風說까지 發生하게 되엿다 獨逸은 只今까지는 二人少婦의 鮮斯한 態度로 國際聯盟 『쏘베트』聯合의 두 男子에게 秋波를 送情하고 잇다가 『게르마니아』孃은 아조 西方開宮으로 出嫁하게 되엿다 今後는 中歐의 爭奪戰이 始作된 것이다 世界問題의 中心은 昨年의 『또스』案, 今年의 保障條約을 境界線으로 하고 大西洋岸을 떠나서 아조 太平洋岸으로 옴겨 온 것은 가장 明白한 事實이다 이 點은 吾人의 크게 留意치 아니치 못할 바이다

風雲危急한 中國情勢

吳軍漢口에 入城
砲艦三隻에 分乘하고

(東京電) 漢口南京濟南等地로부터 日本外務省에 入한 公電을 綜合한즉 吳佩孚는 步兵八百을 砲艦三隻에 分乘시켜 廿日武昌에 着하야 二十一日漢口에 入城하고 蕭耀南과 會見하엿는바 直時 京漢鐵道에 依하야 北京을 攻擊할 形勢를 示하는 中이며 一方 孫傳芳은 二十一日 七萬의 兵으로써 南京에 入城하야 江蘇軍二萬을 合한 後 二十二日 津浦線으로 徐州에 向하리라 傳하는 中인데 此에 對한 奉天側은 徐州에 大防禦線을 張하기로 하고 張宗昌은 山東鐵路에 對하야 機關車의 使用을 禁한 後 濟南에 集中키를 命하야 外軍隊輸送에 備하고 李景林은 一方馮을 防備함과 共히 一部의 兵을 徐州에 送할 豫定으로 가장 注意할 것은 河南의 岳維峻과 馮玉祥의 態度이나 吳佩孚의 態度에 依하야 그 態度를 鮮明히 할 模樣이라더라

奉軍派二十七萬
反奉天派六十四萬餘
◇注目되는 徐州의 戰雲

(東京電) 某處着電各情報를 綜合한즉 徐州에서 奉天反奉天兩軍의 大關戰은 免키 難한 듯하며 또 時機도 切迫된 것과 如히 觀測되는 바 卽 奉天側에서는 同地에 集合한 楊宇霆, 姜登選, 邢士廉等 軍隊와 山東軍을 合하야 五省聯合軍을 阻止하려 하고 南京에 入한 孫傳芳氏는 直時 北進하야 一擧에 敵을 葬하려 함과 如한 바 目下 兩軍의 兵力은 大槪 奉天派의 總數 二十七萬四千 反奉天派의 總計 六十四萬五千으로 計算되며 孫岳, 方本仁等의 態度는 尙今 不明하나 反奉天派로 看做함이 可하다 云하는 바 楊宇霆氏는 張作霖氏와 善後策을 圖할 模樣으로 目下 段執政에게 求하고 잇는 討伐令이 下함을 待하야 討伐軍總司令이 된 後 奉天派의 帷幄에 參하야 軍政運用에 當할 터이라는데 南京에 立脚한 孫傳芳軍은 其兵이 約七萬에 達하야 此에 降服한 江蘇軍二萬을 合한 後 主力部隊를 津浦鐵道로 徐州에 向進시키는 中이라더라

奉軍飛機配備

(奉天電) 張作霖氏는 曩者 佛國으로부터 優秀飛行機를 受入하엿는대 其中 十五機는 二十一日 到着하고 殘餘 八機는 二十日 大連에 到着하엿다 그래서 奉天派의 飛行機는 奉天, 濟南, 錦山에 各一個隊가 잇스나 尙且 不安하다고 하야 優秀機 六十機를 濟南以南에 一週日內로 移하라고 命하야 目下 至急組立中이라더라

關稅會議는 延期乎
中國各地의 動亂으로

(東京電) 外務省에 到着한 在中日本各領事의 最近報告에 依하면 吳佩孚氏의 再起로 奉天軍並 孫軍의 徐州集中을 陶하야 形勢는 刻刻 白熱化함과 如하야 近近 徐州方面에서 一大接戰을 演出할 形勢인데 此等 內變을 眼前에 두고 關稅問題와 如한 重要한 懸案을 討議함은 中國政府로서는 勿論 列國側으로서도 더우 愼重을 缺할 念이 잇슴으로 結局 此事態 鎭靜에 歸하기까지 該會議의 開會를 延期하기로 될 듯 觀測되더라

會議는 期必遂行
芳澤日公使談

(北京二十一日發) 時局이 險惡하야 關稅會議의 前途가 念慮될 에 際하야 芳澤氏는 語하되 關稅會議를 압헤두고 이러한 時局險惡을 甚히 遺憾이나 中央政府는 全

波蘭政府 潛水艦大建造

(나우엔二十一日發) 『월소』特報에 依하면 波蘭政府는 佛國會社에 十二隻의 潛水艦을 注文하얏다는데 經濟特報에 依하면 米國上院委員長 『보라』氏는 右潛水艦을 佛國이 製造하야 引渡하는 것이 事
…建艦이 軍縮條約違反인 與否의 審査를 命하얏다더라

米國의 對佛貸金
此以上더못주어

(華盛頓二十一日發) 亞米利加의 『나쇼날시티』銀行頭取 『밋첼』氏는 大統領을 訪問한 後 亞米利加諸銀行은 目下 提議되는 것과 如한 五年間協定으로 米佛債務는 整理되리라 하는 現狀을 基礎로 하야서는 此以上 佛蘭西에 向하야 貸付코자 하는 意嚮을 有치 안한다고 語하더라

訪日中國飛機
來月一日奉天發

遞信局着情報에 依하면 中國의 訪日飛機는 十一月一日 奉天發 安東을 經由하야 平壤着陸 更히 京城上空을 通過하야 大邱에 着하얏다가 大阪을 經하야 東京着할 豫定이라더라

對米債務問題
佛藏相新案提出

(巴里二十一日發) 公式으로 發表한 바에 依하면 佛國財政長官 『카이요』氏는 亞米利加에 向하야 對米債務整理案의 新對案을 提示코자 하는 中이라더라

露阿貿易交涉

(나우엔十六日發) 勞農露國은 阿富汗斯坦과의 貿易金融을 供給하며 阿富汗斯坦에 資金을 供키 爲하야 同地에 勞農銀行의 支店을 設置할 許可를 得코자 目下 交涉中이라더라

◇討議事項
一、各地에 支部를 設置할 것
一、全鮮勞農團體統一을 期할 것
一、來年五月一日에 一週年紀念을 行할 것
一、會館을 建設할 것
一、勞働夜學을 奬勵할 것
一、巡廻講演을 隨時開催할 것
一、勞働者讀本其他書籍을 購入配布할 것

婦人夜學開催
沙里院에서 來月初부터

京義線沙里院基督靑年會에서는 婦人夜學會를 開催키로 準備中인데 場所와 敎員의 氏名은 如左하며 敎員諸氏는 義務로 敎授하리라더라

場所 西部禮拜堂內
課程 普通
開學 十二月一日
學生資格 十五歲以上婦人
敎員 金海遠 池永福 崔善福 金光信(沙里院)

平壤基督敎
青年會舘建築
總工費六萬三千圓豫定

平壤基督敎靑年會에서는 同會舘을 建築키 爲하야 會長 金東元氏 外 理事數十人이 寄附金募集에 努力하는 中이라는 바 其內容을 뭇건대 建築費總額 六萬三千圓中에 建物費 四萬圓은 米國紐育基督敎靑年會總聯合會에서 負擔하고 垈地價 二萬三千圓만 同會에서 負擔하기로 하야 同會에서는 當局에게 一個年間豫定으로 寄附金募集許可願을 提出하얏던 바 去六月十五日에 許可되얏슴으로 近日募集에 着手할 터이라 하며 建坪은 一百五十坪에 三層이고 大集會室은 定員 一千五百名가량을 收容하게 되다 하며 建築後에는 一般社會에 公開使用케 한다는 바 集會場所에 困難한 平壤에서는 一大福音이 되리라더라(平壤)

三大勞働夜學
臨河面에서 蔚興

慶北安東郡臨河面에 잇는 臨河靑年會에서는 面內各洞里의 無産兒童을 爲하야 勞働夜學을 設置하기로 되야 임이 三個所의 夜學을 設置하얏다는데 勞働夜學의 位置와 敎授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고

臨河靑年會附勞働夜學
臨河靑年會秋月勞働夜學
臨河靑年會松川勞働夜學
金世會 金廷植 金鍾植 金號秉 金吉明(安東)

沃川의 女子夜學復興

沃川郡邑內基督敎勉勵靑年會內 女子夜學은 昨年十月부터 一個年동안 延禧氏 外 數人의 義務的 敎授로 維持하야 오던 中 經費困難으로 廢學의 悲運을 當하얏든 바 今般 諸氏의 盡力周旋으로 去十九日부터 復興하게 되엿다는데 一層 設備를 充實하게 하야 만흔 英才를 敎養하리라는데 敎師는 延瓚, 李願學, 宋德彬 諸氏라더라(沃川)

大同橋附近에 禮拜堂新築
新設한 長老會發展

平壤府外船橋里에 잇는 耶蘇敎會는 創立된지 已久하얏스나 敎會事業이 萎靡不振하야 一般信徒는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여 오던 바 今番 尹元楨 … 兩氏의 努力으로 長老敎會를 新設하고 附屬學院을 經營하며 大同橋附近에 禮拜堂을 新築하는 中이라는데 基地 約千圓되는 百坪을 寄附하얏고 建築費는 有志諸氏의 義捐金으로 補充한다는바 只今까지 募集된 義捐金도 不少하다더라(平壤)

安州排水工事
旱水災의 豫防과 窮民救濟策으로

安州郡立石面이라 하면 毎年 春季에 水災旱災를 聯想할 만큼 被害地인바 今年秋收도 不實하야 現在에 困窮한 農民도 만타 하며 더욱 過多이 念慮되는데 安州郡當局에서는 이 農民困難의 根本原因이 되는 水旱災를 防止코저 하야 立石面의 新內洞及與法各里를 通過하는 水路를 浚渫할 計劃인바 總工費 五千圓中 半分은 救濟金下付한 것으로 하며 半分은 地主에게 要하리라 하며 이 工事가 始作되면 當場 窮境에 싸진 農民들의 버리도 되리라더라(安州)

東萊青年會 內容革新
年齡制限實施

慶南東萊靑年會에서는 去二十日 午後七時半에 該會會館에서 第九回臨時總會를 開하고 臨時議長 金哲圭氏 司會로 議事를 進行하엿는대 重要事項은 前總會에서 決定된 年齡制限後(滿十八歲부터 三十歲까지)의 會員을 報告한바 執行委員中 白光欽, 金友三, 趙熙守 三氏는 年齡超過로 會員의 資格을 喪失케 되고 其餘執行委員 四氏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辭任케 되야 結局 委員全部의 改選을 한바 被選된 諸氏는 如左하다 하며 同十二時에 散會하얏는데 新任執行委員이 執務케 되면 東萊靑年會의 內容에는 만흔 革新이 잇스리라더라

▲委員
委員長 朴文稿 庶務 李雲錫
司文 金哲圭 輿論 李沃周
音樂 兪守濬 運動 尹三東
財務 秋圭映(東萊)

蔚山兵營 勞農同志總會

蔚山郡兵營에 잇는 勞農同志會에서는 지난 十八日 午前十時부터 定期總會를 兵營北門外假設場에서 開催하고 執行委員長 金際烈氏 司會로 諸般議事를 進行하엿는바 當日出席會員은 二百七十三名에 達하얏다는데 被選된 執行委員의 氏名과 討議事項은 如左하다고(兵營)

◇執行委員
執行委員長 金際烈 委員 李一泰 朴豊鎬 朴準萬 朴成鎬 朴命喆 朴敏鎬 李任度 朴文翰 李武田 外十八名

大發展되는 牛峙勞農夜學

光州郡牛峙勞農靑年會에서 夜學을 設立하고 幹部諸氏의 努力으로 成績이 良好하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學生이 逐日增加하야 敎室이 不足함으로 增築을 開始하엿던 바 地方人士의 同情이 多大하야 豫期以上의 敎室이 竣功되얏다더라(光州)

投稿歡迎 啄木鳥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江景青年會와 改革할 諸問題

◇가을 定期總會가 닥처옴으로 미리 改革할 두어 問題를 討議하야 두고저 한다 第一은 會長改選이니 우리가 아모리 特權階級의 治下에서 資本主義의 經濟로 生活의 安定을 欲求하는 愚直한 靑年이라 할지라도 엇지 高利貸金業者를 指導人物로 推戴하야 그 金力에 征服을 바드는가

◇이 可惜한 事實을 間斷업시 過去一年에 우리 靑年會의 歷史를 汚辱하게 맨들어 왓다 思想이 流動하는 世情은 變轉하야 完全한 域으로 進化하고 마지 안는 社會의 法則은 그 變遷의 速度를 오직 健實한 靑年에게 希待하는 바이니 靑年의 志氣와 勇力이 모름직이 强大할사록 人類의 幸福은 增進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靑年을 指導할 人物이야말로 偉大한 人格者가 아니고는 思想家가 아니고서는 到底히 그 責任을 다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우리 靑年을 敎導하는 先驅의 勞心과 思想을 注入하는 先覺의 經驗은 모다 그대로 模範될 것이니 이러하게 하여야 할 그만한 人物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 아닌가? 다부질업시 富者의 光을 도아 靑年의 銳氣를 自殺의 途를 取하지 말고 果敢잇시 人性의 天眞을 保하며 靑年의 志操를 자랑하는 進取의 길을 開拓하여야 한다

◇아! 金權의 橫暴를 無識히 當한 젊은 同伴아! 어찌 資本者에게 反抗은 업고 愛着이 웨 만흔가? 卑屈이 생기고 腐敗를 보며 暗陰한 압길만이 互惡하게 展開되는 것을 몰으는가? 아는가? 크게 覺悟하여 두라

◇第二는 會員年齡이다 우리의 靑年期는 大槪 十七, 八歲로부터 限四十歲까지 性氣發渺한 時機를 가리켜 일음이니 可謂 人生의 黃金季節이라 하엿슴은 自他의 是認하는 바어늘 엇지 靑年會로서 五十六十의 老齡長者를 加入식히여 왓는가?

◇이것은 靑年會의 物質的 機能을 有力하게 또 量으로 多數糾結한다는 虛榮으로 無識한 態度를 取한 모양이니 斷然히 整理하여야 할 問題이다 江景靑年아! 부대 이 積弊의 改革을 斷行하라 (金成濟)

四郡運動者 懇談會準備
三十餘團體에 參加勸告

現代의 最大威力은 統一된 데 잇다 하야 統營總運動同盟과 固城靑年會의 幹部는 去二十日 下午八時 大和町本報支局에서 모혀서 統營, 固城, 泗川, 南海의 四郡運動者懇談會를 十一月七八兩日間 統營靑年會館에서 開催하기로 하야 그의 準備會를 開하고 勞農, 靑年, 衡平, 女性, 思想의 三十餘團體에 加入을 勸하는 宣言과 通知를 發送하고 따라 千斗上君은 昆陽, 三千浦, 泗川, 南海에 高泰允, 金相顯, 金戴學君은 互濟各面과 欲知에 派遣하기로 하얏스며 準備委員에는 梁在完, 千斗上, 金相顯, 高泰允, 朴泰根, 金戴學, 姜喜榮, 金相煥, 黃能度, 丁奎勳 諸氏가 被選되고 毎團體代表 二人以上 會費金一圓式으로 決定한 後 同十二時頃에 閉會하엿다더라(統營)

稱頌밧는 地主
賭租를 輕減

鳳山郡邑內에 居住하는 張世榮氏는 大正十一年大水害以後로 小作人의 賭租에 對하야 매우 輕減하야 줌으로 그의 小作人들은 秋收의 怨言이 업다는데 近來 苛斂하는 地主가 만흔 중에 이러한 篤志家가 잇슴으로 더욱이 稱頌이 놉다더라(沙里院)

都草爭議에
同情金品遝至

務安郡都草小作爭議에 依한 犧牲者를 爲하야 務木勞農聯盟救護部에 同情金品이 遝至한바 其氏名及金額은 如左하더라(木浦)

日本酒二升 甘諸一斗 尹公俊 朴益煥 金十一圓六十錢 無名氏 五圓 無名氏 三圓 無名氏 五圓 京城靑總 五圓 無名氏 金十圓 無名氏 五圓 無名氏 合計 四四、六〇

運動界

全端川蹴球大會
廿團體聯合으로

咸南端川에서는 當地市民運動部 主催로 지나간 十八, 九兩日 開當地公園코-트에서 全端川蹴球大會를 開催하고 第一日인 十八日 午前十時十五分에 同大會會長 崔昌煥氏의 司會로 李浚鎔氏 主審下에 競技가 始作되야 當日에는 二十個團體가 順序로 豫先戰을 마치고 第二日인 十九日에는 決勝戰을 하엿는데 그 兩日間 出戰한 選手들의 猛擾虎掠의 競技術은 數千觀衆에게 無雙한 快感을 주엇스며 最後決勝에는 端川『運動部』와 端川『少年會』가 相對하얏다가 優勝의 月桂冠은 端川運動部에 돌아갓다고(端川)

◇谷城普校聯合運動 全南谷城公立普通學校에서는 來三十一日에 當校運動場에서 普校小學校聯合大運動會를 開催코자 準備中이라고(谷城)

◇吉祥公普運動 江華郡吉祥面公立普通學校에서는 오는 二十七日 午前九時부터 同校運動場에서 秋期大運動會를 開催한다고(江華)

南朝鮮 個人庭球延期
東亞朝鮮兩支局後援

全北金堤體育會의 主催로 오는 二十七, 八兩日間 金堤郡廳 『코트』에서 南朝鮮庭球大會를 연다 함은 旣報한바와 갓거니와 그 後報를 들은즉 東亞日報, 朝鮮日報 兩金堤支局의 後援으로 開催한다는데 時日을 延期하야 오는 三十一日부터 兩日間 開催하리라 하며 申請期日은 三十日까지요 抽籤은 三十一日 午前八時이라는바 二十二日까지 벌서 參加組가 十餘組이나 된다고(金堤)

全朝鮮蹴球大會
第五回로 平壤에서 開催

平壤基督敎靑年會에서는 去十七日 午後八時 同會舘內에서 體育部員會를 開하고 秋期로 延期하얏던 第五回全鮮蹴球大會를 來十一月十二, 十三兩日에 崇實專門學校運動場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平壤)

◇江華公普運動 江華公立普通學校에서는 來二十九日 午前九時부터 同校運動場에서 秋期大運動會를 開催한다고

◇長湖院公普運動 長湖院公普學校에서는 秋季大運動會를 去二十日 午前九時에 同校그라운드에서 開催하엿는데 四百餘名 男女生徒의 六十餘種競技를 비롯하야 男生의 假裝行列과 女學生들의 『지오그라피』는 人山人海의 觀衆으로 하야금 無限한 興味를 도아 同校未曾有의 大盛況을 일우엇다고(長湖院)

◇忠州公普運動準備 忠州公立普通學校에서는 本月二十五日 同校運動場에서 秋季運動會를 盛大히 擧行하리라고(忠州)

◇兩校庭球戰 去十七日 午後一時부터 寧越平昌兩校學生軍이 平昌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 庭球戰을 開하엿는데 觀衆이 三百餘名에 達하야 大盛況으로 同五時頃에 無事閉會하엿는데 優勝은 平昌學生軍에게 歸하엿다고(平昌)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十月三十日로부터 二日間
場所 金堤郡廳『코트』에서
申請所 金堤郡廳內體育會
參加金 二人一組二圓(中食提供)
賞品 金『메-달』과 優勝旗
主催 金堤體育會
後援 東亞日報金堤支局 朝鮮日報金堤支局

地方經濟

全南道內 棉花豫想
昨年보다增加

全南은 全朝鮮中 棉花의 主要產出地인 것은 事實인데 昨年度販賣高는 五四、三三七、五七二斤이엇스나 今年에는 五六、五四九、一六〇斤으로 昨年에 比하야 二、二一一、五八八斤의 增加가 될 터이라는데 今年度豫想高는 如左하다더라

作付面積及豫想高

	作付反別	收穫豫想高
木浦	[illegible]	[illegible]
光州	[illegible]	[illegible]
潭陽	[illegible]	[illegible]
谷城	[illegible]	[illegible]
求禮	[illegible]	[illegible]
光陽	[illegible]	[illegible]
麗水	[illegible]	[illegible]
順天	[illegible]	[illegible]
高興	[illegible]	[illegible]
寶城	[illegible]	[illegible]
和順	[illegible]	[illegible]
長興	[illegible]	[illegible]
康津	[illegible]	[illegible]
海南	[illegible]	[illegible]
靈巖	[illegible]	[illegible]
務安	[illegible]	[illegible]
羅州	[illegible]	[illegible]
咸平	[illegible]	[illegible]
靈光	[illegible]	[illegible]
長城	[illegible]	[illegible]
莞島	[illegible]	[illegible]
珍島	[illegible]	[illegible]
濟州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光州)

元山雜穀在庫高

元山稅關統計餘의 調査에 依한 十月二十日現在 當地의 米穀及雜穀在庫高는 左와 如하더라(單位石)
精租 九二〇 玄米 一七七 白米 一六九 碎米 二四九 計 一五六〇▲ 輸入米 留貿米 五七二 滿洲粟 一七一九(元山)

元山米中旬出入高

本月十一日로부터 二十日까지의 中旬中의 當港輸出米는 玄米 四百四十三石 精米 三百八十四石 合計 八百二十七石이요 輸入米는 外國米 二百二十一擔이라고(元山)

咸南秋繭好績
前年보다三倍餘

咸南今年度 秋繭產額은 秋蠶이 三千三百七十三石이요 晩秋蠶이 二百四十七石으로 計 三千六百二十石으로서 道內各共同販賣所의 取扱된 共同販賣高는 實九百石에 達하는바 此를 前年度의 共同販賣高 二百六十餘石에 比하면 約三倍半의 增加이다 그런데 本年度의 秋繭品質은 頗히 良好하야 價格도 前年度의 平均額 五十三圓에 比하야 本年度는 平均額이 八十圓의 高調를 示하얏다더라(元山)

城津清津橫斷貿易

九月中 橫斷航路貿易은 淸津城津二港의 淸津港輸出對敦賀 十七萬五千八百八十圓, 伏木 二萬六百七十四圓, 七尾 九千三百四十圓, 舞鶴 一千七百八十二圓, 合計 二十萬七千六百七十六圓, 同輸入 敦賀 三萬二百八十一圓, 伏木 五萬九千四百十八圓, 七尾 一萬八千四十三圓, 舞鶴 三千五百十九圓 合計 十一萬九百一圓이요 城津港에는 敦賀對輸出合計 四萬七千八百三十八圓이요 同輸入合計 四萬七千八百三十八圓이라고(元山)

白鶴學院振起
有志熱誠으로
經費를 엇고저 巡廻映畵

已未以後 到處에 雨後竹筍처럼 일어나든 敎育風潮로 永川郡知谷面에서도 曹秉哲外兩氏가 白鶴學院을 세우고 한동안 學面一致의 誠力으로 經營하야 오든 바 차차 敎育熱이 식어짐을 따라 白鶴學院도 亦是 微微不振한 中 다행히 『시온』村同人의 힘으로 僅僅殘喘을 支持하더니 去年以來 凶作으로 一層 困境에 陷한 바 面內有志, 現經營者인 『시온』村同人들은 百方으로 方策을 講究한 結果 活動寫眞隊를 組織하야 各地로 巡廻한다는데 이미 慈川, 知谷, 永川等地에서 多大한 歡迎을 바덧스며 압흐로 大邱, 慶州, 淸道等地에도 巡廻하야 그 收入으로 經費에 補用하리라더라(大邱)

劉德姬孃熱誠

全南谷城修養靑年會經營으로 지난 八日부터 婦人夜學會를 當地靑年會舘內에 開催하고 幼稚園保母 劉德姬孃의 熱烈한 勤勉下에 成績이 良好하야 講習生이 三十餘人에 達하엿는데 該孃의 熱誠을 一般이 稱頌한다더라(谷城)

◇寸鐵◇

◇訂正申請 大正十四年八月二十一日 貴報一千八百七號 第二面에 淸州邑市場管理者의 橫暴란 題下의 記事는 事實錯誤의 記事이온則 訂正하여 주시기를 要하와 玆에 申請함
大正十四年十月二十一日
忠淸北道淸州郡淸州面市場町
右申請人 淸州面市場稅徵收補助員 崔正德

◇【載寧】信川郡內에 居住하는 某는 載寧邑內에 居住하는 某妓生에게 失戀하야 精神에 異狀이 생겻다니 이것이 精神病者일가

◇【醴泉】郡廳에서는 自轉車稅金을 아니 내인다고 食鼎을 差押하얏다 그나마 稅金아니 내엿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랴 稅金을 밧고나서 또!

◇【永興】市內面長 某가 突然辭任, 벌서 某某紳士輩의 面長運動은 白熱化되엇다 그러나 郡守令監은 벌서 緣故者 同面職員 某를 內定하엿다 한다 紳士님들이여 書記運動부터 먼저 하지?

The Korea Dail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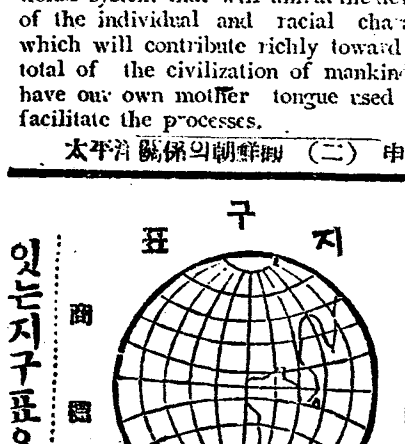
Seoul, Korea, Friday, Oct. 23rd, 1925.

A KOREAN VIEW OF PACIFIC RELATIONS.
BY HUGH CYN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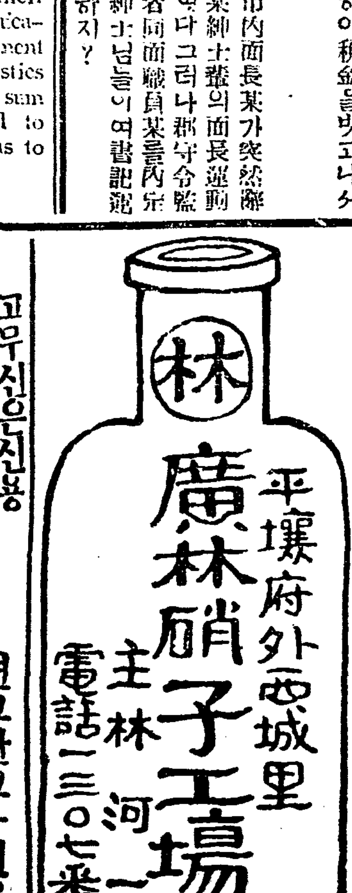
Among the three world religions that are found in Korea, namely Confucian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the last shows the greatest vitalizing power. Protestantism entered the country only in 1884, but the growth has been so rapid that we find at the present moment one out of every fifty Koreans Christian. This phenomenal growth is due mainly to two factors in Christianity, namely (1) personalism and (2) spiritual experience—personalism that recognizes individual worth and gives birth to the democratic principle of liberty and equality, and spiritual experience that makes religion real and an everyday fact. While we rejoice in the accomplishments of the past, we realize that the problem before us i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truths in accordance with racial genius of the people and the application of the truths to social and inter-racial relations, as well as to personal conduct.

In the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in the whole system of administration is found the "policy of assimilation," or amalgamation, of the Korean people. To us this policy means the ignoring of our history and culture and the deathknell of our individuality. In order to carry out this policy the educational method, the personnel of the teaching staff and the language medium through which the lessons are taught have been either entirely or almost entirely Japanese. Material prosperity has no meaning for us, of that prosperity spells the one-sided advantage to those who control prosperity and to us only the losing of our own identity. Yet, an editorial that came out in the official organ, "The Seoul Press," on July 16, 1920, nearly a year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widely-heralded civil regime, said, "We will not, however, waver in our determination to Japanize the Korean people, for we believe that our intention is right and just and that in Japanizing them we are promoting their welfare." Our problem is to have an educational system that will aim at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and racial characteristics which will contribute richly toward the sum total of the civilization of mankind and to have our own mother tongue used so as to facilitate the processes.

太平洋關係의朝鮮觀 (二) 申興雨



있는지구표요
고무신은신용
견고한고무신은
지구표외에또업소
일년간신는신은
지구표고무신이요
合資會社 朝鮮고무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番地
【電話長本局二一四二番 振替京城七五七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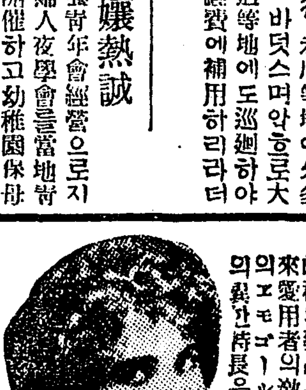


光州―順天―麗水間
光州―寶城―水門浦間
光州―長城―間
光州―和順―間
各線汽車連絡
光州相馬自働車部
電話一〇三番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電話本局一六六〇 振替京城一四二五八)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電話小石川四七七 振替東京三八七一八)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話長本局五八八 振替大阪三五八七)
附屬醫院 本支店內에 附屬醫院을 設備하얏사오니 何人이던지 診察治療를 하는 故로 病者는 來店하시압

京城支店及附屬醫院設置
今般各方面의 希望에 依하야 京城支店及附屬醫院을 新設케 되얏삽나이다 特히 當支店으로 直接 御注文하시는 분에 限하야는 小包料를 不要함

御注文의方法
藥價는 御注文하시는 人士는 右藥價를 郵便小爲替나 振替貯金으로 送金하시면 着金하는대로 當方別名으로 密送함 又는 代金引換도 取扱하나 此는 金貳拾錢만 郵便으로 先送을 願함 代金中에서 二十錢은 除하고 發送하압나이다



定價表
十回分 金參圓
廿回分 金五圓
四十五回分 金拾圓
百回分 金貳拾圓

生의復活―悲觀으로樂觀
精力의源泉 活力
一回就寢前服用의 에모고-루 作用

本劑는 熱帶地方에서 産出하는 極히 高尙한 動物의 睪丸(불알)中으로부터 抽出한 精分과 호르몬 藥物性의 特殊藥을 主劑로 하야 製出한 最新美味의 錠劑로서 毎日就寢時 一回式 服用하면 左와 如한 影響이 有함 本劑의 主效는 絶對確實하나 就中 左의 容證에 用하면 奇妙함

生殖器의障害 — 男女不○然의 行爲又는 ○事過度로부터 起因한 感覺遲鈍, 早○, 夢○, 陰○, 萎縮, 不能, 不全發育 等의 生殖器障害를 復活케 함

生殖器 性神經衰弱 — 所謂 腦病, 神經衰弱이라 稱하는 病中에는 生殖器障害에 起因한 者ㅣ 多하야 其容證은 生氣, 氣力乏絶, 頭腦의 統一이 不能하며 記憶力思考力減退, 諸般事의 健忘症又는 空想, 頭痛, 不眠, 憂鬱, 感覺力이 漸退 等이니 如斯한 病者에게 에모고-루를 服用하시요

婦人性的缺亡 — 婦人性育的 不全發育及 各種의 原因으로부터 來한 無○覺及 缺少, 生殖器性神經衰弱으로부터 來한 頭痛, 肢體逆上等 各種의 容態를 現出할 者에게 에모고-루를 服用하시요

老者도少年으로 — 俗에 云하기를 色과 慾의 世上이라 하는 俗言과 如히 色慾을 失하면 何事에던지 滋味가 無케 되야 所謂 老衰하야 努力活力 氣力이 無하야 活動이 不可能케 됨은 是에 反하야 精力을 持續하면 壯者를 凌駕하고 元氣가 壯大하야 百歲까지라도 健康히 活動케 되오 에모고-루는 如斯한 老弱者를 復活케 함

壯者는益益强壯함 — 에모고-루는 前記諸症을 復活케 할 뿐 不啻라 健康者가 恒常 服用하면 精力의 消耗를 補充하고 元氣를 漸漸强大케 하며 活力을 增進하며 頭腦를 爽快케 하야 말할 수 업는 愉快를 增進하는 事ㅣ 頗히 奇妙함

無上의爽快味 — 然하면 前記何症狀에던지 適合한 人은 勿論이고 精力을 增進하야 人生無上의 爽快味를 得코저 하는 人은 必히 本藥을 試用하시요 반다시 本藥의 特長及效能에 驚歎하리다 本劑의 應用을 廣히 宣傳하압나이다

此種의 藥品은 現今全世界에 一種의 流行하는 者로서 我國에서도 來愛用者의 效驗함에 從하야 如此한 藥品의 續出함을 見함은 弊店發賣의 에모고-루는 其效能의 點과 服用法이 他藥과 一班의 異한 特長을 有함

頻頻한情報에 全鮮警察緊張

김좌진과 김원봉의 밀의로 독파원이 조선으로온다고

해마다 紛紛한추풍이 락엽을날리기시작함에와 백설이 紛紛날리는 시긔가되면 로령(露領)과 남북만주(南北滿洲)방면 으로부터 모모계획과 사명을가지고 조선내디에 잠입하야경성텬디를 발끈뒤집는 일이거의년중행사가 되다십히 하야경찰에서는해마다이때를당하면

더욱경계 가엄중하야공긔가 자못긴장하야지든중 마츰최근 얼마젼부터 무슨단원이무슨사명을 가지고 드러왓느니무슨당원이 무슨목뎍으로 드러왓느니하는 정보가 경긔도 경찰부에빈빈히 도착하야 근일경계가매우 엄중하든바 남북만주에 근거를두고 활동중인군정서(軍政署) 두령김좌진(金佐鎭)이와 의렬단(義烈團)두령김원봉(金元鳳)이가 최근 얼마젼에 중동선 오참(中東線五站)에모혀서 조선내디에

독파원을 보내여활동할것을의론한후 가장 용긔잇고 민첩한부하 각각 여덜사람식을 조선내디에 파견하엿다는 정보를바든 경긔도경찰부에서는 방금 조선각처에경계선을 느리고 극비밀리에서대활동중이라더라

京電電車課에서 太平通線을新設

총독부신령사의관계로 남대문에서광화문까지

경성시내현재의 뎐차궤도망(電車軌道網)만가지고는 나날이느러가는 만흔시민에게 편리를주지못할것임은 물론하고 작금만하더라도 일부에잇서 적지안은 불평을 늣기는중임으로 경뎐뎐차과(京電電車課)에서는총독부신령사(新廳舍)의 락성과 전후하야 뎐차궤도의 대증설을계획하고목하예산기타에대하야준비를급히하는중이라는데이제그내용을드른즉 남대문안뎡류장(南大門內停留場)에서 북쪽으로태평통(太平通)을꾀뚜러새경성부령(新京城府廳)압헤이르고다시 쐐떠나가광화문선(光化門線)과련락할계획으로 이 신설궤도사이에는 삼사처의 뎡류장을신설할모양인바 기타장충단(奬忠壇)으로통하는궤도에서지도 신설할터이며다시단선(單線)의궤도를복선(複線)으로고칠곳도잇다더라

成熟前農作物을 小作料로미리差押

익어가는곡식이논에서 새밥이되고잇는중이다!

전남순텬군 동초면(全南順天郡東草面) 부호김병욱(金炳郁)은금년봄에 자긔소작인으로 자긔에게복종안는다고 동면 리곡리(同面李谷里)에사는 안태섭(安兌燮)이라는 소작인의경작하는논(畓)이십삼두락을률수히탈작하야임으로안소작인은 이분하야 백방으로 주선하야보앗스나 필경 배앗기게 됨으로부득이 순텬지텽(順天支廳)에 소송을 제긔한결과 소작권을 회복한바안소작인은 물론이요 디방에잇는일반디주들도 그것을 보고삽가를결과한소송으로 배소작인이나 안권하게되엿더니 김디주는그소송에락송(落訟)됨을분개하야이래

백방으로 안소작인의생활을방해하든중 안소작인은최근에농작물이 거의 성숙되매비로소 맛보라고 몃마직이를비여노코 남어지는 아즉성숙지못하야주린배를 움켜쥐고 매일성숙되기를기다리고 잇더니 김디주는 안소작인이소작료를밧지안코(不納)하리라는 혼자념려로올연히지난 십륙일에 벼락가티차압을 집행하얏다는데,

그내용을 드른즉그로디 이십삼두락에 대하야 소작료는매년십구석을 주어오더니 거년에는 이십일석까지 주엇고금년에는 흉년재년임으로 약간어려도 감소하야 이십석이내가될줄로바랏든바인데 차압 서류를본즉이십오석의 소작료로가뎡(假定)하고 차압을당하엿는바일반으로항의書를

뎨출하고 일방으로김디주의 무리를 경고하여논벼(稻)는논에서 일변썩는모양 이요비어가는벼는 임자업시 새밥이되야필경 수확이업슬 념려인고로 안소작인은 더욱비관중 이라더라(순텬)

慶北青年聯盟 發起會는金泉에

참가자격은군련맹원

경북안동청년련맹(慶北安東靑年聯盟)에서는 청년운동의조직뎍통일을 도모하기위하야 경북련합긔관(慶北聯合機關)를조직하기로 지난팔월삼십일 림시대회의 결의로써준비에 착수하엿다함은 이미 두차보도하얏거니와 동련맹에서는 중대한 일을신중히 실행하기위하야 도내각디에서다수의군련맹(郡聯盟)이조직되기를 기다리든바 지금에는 오륙개의 군련맹이 완성되엿슴으로 구톄뎍으로실행하기 위하야지난십구일부로 각디에 통지를발송하엿다는데 그통지의 요항은다음과갓다더라

一、慶北靑年聯盟發起團體資格은郡聯盟에限함

一、發起會日時는來十一月五日

一、發起會場所는金陵靑年會館으로함

一、發起會出席代表는每團體三人以內로함(안동)

蔚山青年聯盟

대회의 미진사항을 준비위원회에 결의

지난십팔일에 경남울산(慶南蔚山)에서는군내십륙단톄의대표사십여명이 모혀서 울산청년련맹창립대회를개최하고의사를진행중에관변에갓가운울산청년회원이 습격하야 회장이 소란하든중림검한경찰은 해산을 명령하엿슴으로부득이회의를준비위원에게맛기고폐회하엿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후준비위원들은십구일오후팔시에 병영오일회관(兵營五一會館)에서준비위원회를개최하고 대회에서 미진된 사항을결의한후 피선된 집행위원은다음과갓다더라

◇執行委員 成世斌

◇檢查委員 金萬山

◇決議事項

一、靑年團體組織에關한件

二、靑年教養에關한件

三、勞働運動에關한件

四、女性運動에關한件

五、衡平運動에關한件

六、少年運動에關한件

七、異流團體에關한件

八、會報에關한件 (병영)

巡查宿舍建築費를 面民에게徵收

면장이열성잇게활동 면민은불평에싸혓다

평북뎡주군곽산면장김뎡근(平北定州郡郭山面長金鼎近)은 동면주재소순사숙사를건축한다고 일반면민에게 례에업는 삼천여원의 거대한금액을 모집하엿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권긔김뎡근은 본래관리측의한사람으로 면내각동리에 호별방문하여가며『만일 이일에긔부를하지안흐면 후일이 조치못하리라』고말함으로 무지한면민들은 할수업시 긔부를하엿다는바 이에대하야 면내사람이 불평을품고각신문지국장을 차저가서 진뎡을하엿스나 그자들역시 관뎡측의일파로 권긔순사숙사건축청부를자긔네가마터가지고 사실을 매장함으로 일반면민은 물론이요 관군에서 쏘지도 비난이 적지안타더라(신의주)

納稅者에게差押

세금은바친지가오랜데 밧지는숫을차압하얏다 不統一한醴泉郡廳의失態

지난 십팔일오후 세시경에 례천군읍내서본동 장덕수(慶北醴泉郡邑內西本洞張德守)의 집누근에서 례천군텽(醴泉郡廳)과동군읍내 백뎐동(栢田洞)림창덕(林昌德)과 동군읍내에 잇는 황병선(黃秉善)사이에 서로 힐난이생기여 관중이구름가티 모히엇섯는데 마츰여러사람의 권고로 헤여졋다가그날오후여섯시경에다시례천경찰서압길에서 권긔두사람이맛나일시는 또구론을하다가 여러사람의 권고로각각 도라가고 말엇는데그힐난하는 리유를 듯건대권긔황병선은 가세가빈곤함으로 매일각디시장(市場)에다니면서벌어 그날그날을 생활하여 나가는형편인데 자긔가타고 다니는자뎐거(自轉車)세금(今年二期分)을 그럭저럭하다가 긔일이 지나도록 바치지못하야 톄납독촉(滯納督促)을당하고는곳세금을준비하야 세금일원과 독촉수수료십전합하야 일원십전을 지난

십삼일에 례천우편소에 납입하엿는데 납입할써에 례천군텽원징수사무(徵收事務)보는권모(權某)로부터납입고지서에 령수인(領收印)을바더 가지고잇든중 십륙일에는권긔황병선은권과가티볼일이잇서나가고업는사이에권긔군속인세무관리림창덕은면서긔(面書記)와백뎐동구장(區長)다리고황병선의집에와서숫(炭)을차압하면서주인을

차즘으로 황병선의안해는주인이 출타하야 오날밤이나 내일아츰에 도라온다고 대답하매림씨는『자뎐거세금을 아직까지바치지아니함으로숫을차압하는것이니 주인이도라오거던 곳세금을 바쳐야된다고말하라』하면서 드듸여차압하여두고 갓는바이일을 당한황병선은 크게분개하야 씨를찻다가마츰 권긔와가티 도로에서맛나서

그부당함 을문책하매림씨는말하되나는군수의명을바더서그리한것이니 나개인에 대하야는이러한곳에서뭇는것이불가하니 한속군텽에와서상당히질문하라 함으로 그와가티 힐난한것인데 그이튼날 권긔권모가 황병선의집에와서 차압을 해제하고가면서 자긔가 출장하고업섯슴으로 이와가티되엿다는 뜻을말하더라 하며 일반황병선은 이로인하야 일반에 신용을 만히일헛슬뿐아니라 삼사일동안 이웃집에가서 밥을지어먹노라고 다대한 손해를보왓스니 상당한 수속을하리라하며 권긔림씨측에서도 대책을강구한다더라(례천)

海西農民의慘境

黍粟凶作으로 / 수천농민의식량이벌서업서 산에가서도토리를따서연명

황해도연선(黃海沿線)디방에는 금년에수재 한재가겹하야어연디방에는 벼농사가말할수업시되엿고도만치마는더욱해주(海州)옹진(甕津)장연(長淵)송화(松禾)은률(殷栗)등디에는 조(粟)농사가더욱되지아니하야금년은 겨우작년의반분밧게 수확이되지아니하야 벌서부터식량이 업서지게된사람도만흔바동디방에는 약한달전부터 날마다산에사람이하야케올라가서 도토리를따다가 이것으로 죽을쑤어겨우연명하야가는사람이얼마인지아지못하며더욱명년봄에까지가게되면굴믈사람의수효가얼마가될지알수 업스리라더라(해주)

秋季聯合賣出 餘興無料公開

부내우미관에서

석간긔보=금이십삼일부터래삼십일일까지 구일동안 시내남대문통과 종로통에잇는 조선인상뎜들이 중심이되여추긔 경품부중앙련합대매출을하되여흥장소를 시내탑동공원(塔洞公園)으로뎡하엿든것은당국에서허가를하지안흠으로부득이우미관(優美館)을빌러서 매일오후네시반부터동다섯시반까지각종의연예가잇스리라는데일반에게무료로관람케하리라더라

南米倉町 空家에盜賊

이십이일오후에

일뎡한주소가업는장성호(張成鎬)(三三)은이십이일오후다섯시경에시내남미창뎡(南米倉町)륙십구번디리규흠(李圭欽)의빈집에잡을쇠를파괴하고침입하야의장을뒤지는것을이웃사람이발견하고 소리를질르자마침 순시하든소관본뎡경찰서원이듯고현장에달려가서즉시테포하엿다더라

德興面長의不德

도에서출장조사한바 면민의진정서와부합

함남영흥군 덕흥면장(咸南永興郡德興面長)장병호(張秉浩)군은 동면장의직에취임한 이래여러가지로 불미한사실이 발각되야 그동안면민대회까지 개최하고동면장의 부정사실을 들어군당국에 진정하고 하회를기다린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그후군당국에서는 군고원류일상(劉一相)씨를출장도사케하엿스나 엇재인지 다만형식에 지나지못할뿐아니라 도리여 진정서에서 명한 대표자를군텽으로 소환하야가지고 별방으로 어르며농락함으로이에대표자들은크게분개하야직접도에진정하고따라도지사(道知事)까지 면회한결과도속이인을지난십삼일에파견하야엄중히조사한바면민의진정과가티 부정사실이 부합한다하야 동면장을불러 면책하는 동시에면장으로부터 면민을 걸어고소한사건을 취하식히고 도라갓다는데 일반은 도의처치를 긔대하는중이며 따라군당국의 처치를비난한다더라(영흥)

平原郡에 牛肺疫이突發

일반농가에서는 매우염려중이다

평원군숙천면(平原郡肅川面)에는 몰연히우폐역(牛肺疫)이 발생하야 여섯머리가이병에걸리엇다는데 그중두머리는 박살하엿스며두머리는도살후에발견한바이병의만연을 매우념려한다 하며함경남도(咸鏡南道)에서매입한소에게서 뎐염되어 만연되는것으로판명되엿다더라(안주)

新安州强盜는 十個月만에逮捕

범행이만히발각되얏다

지난일월오일 안주군 신안주면(安州郡新安州面)오문백(吳文伯)의집에 복면한곤봉강도가들어가 금품과기타물품을 탈취한일로일시인심이 송연하엿든바권긔강도는 지난십구일에 비로소안주경찰서(安州警察署)에테포되엿다는데 이자는 안주군대니면소니리(安州郡大尼面小尼里)윤찬(尹燦)(三四)으로그밧게도지난삼월과구월에도강도한일이잇섯든자이라더라(안주)

永興地方狼害

가축피해다수

요사히 영흥(永興)중부 디대에는매일밤마다 늑대의 침해가심하야큰돌밤에도 동군 복흥면 룡연리장하진(福興面龍淵里張河鎭)의 축우삼십원가티에상당한것을물어갓스며 이어서 부근동리에도피해자가만타더라(영흥)

會員二千이 秘苑參觀

이십삼일오후에 主日校大會三日

이십일일하오 일곱시반부터 개회된조선주일학교대회(主日學校大會)데이일인이십이일 은예각반(各班)으로나누어여러가지공부를한바이잇섯스며오후에는 대회주최의성대한환영연(歡迎宴)과청향의강연회(講演會)가잇서며회초부터 실로공권의 장관이엿는데 데삼일인 금이십삼일에는 역시오천중의각학과를마치고 오후한시부터 이천명남녀회원이 종로청년회관내 광장에모혀위원 김익수(金益洙)씨의지휘하에 각기열데(十部隊)로나노힌후비원(秘苑)과 경성의전(京城醫專)경성고공(京城高工)등을 참관할터이라는데이들은 일제히두열의 장사진(長蛇陣)을 느리워시중을 거를터임으로 시내거리거리에까지 한위관을보히겟더라

河川에落傷

석탄실고가다가 무교뎡천변에서

이십이일오후 다섯시경에 시내서린동(瑞麟洞)삼십팔번디리관익(李寬翼)(三五)은손구루마에 석탄을실어가지고 무교뎡(武橋町)모교(毛橋)를건너서남쪽천변으로 오다가 구루마바퀴가 개천으로 싸지는통에 구루마와함께 개천속으로떠러저서등과배에중상을당하야일시는인사불성에이르럿섯스나목숨

휘파람

▲텰산읍중부동(鐵山邑中部洞)에잇는 리원욱(李元郁)(三五)이란청년은자칭하기를총독부인가를어더가지고인민을보호하노라고하며다니다가 ▲동군여한면 쌍신동(餘閑面雙新洞)에잇는 리학용(李學用)을 길에서붓잡고너의행동이수상하니몸을뒤져보자고하야돈구십원을빼아서가지고▲그자의행동이 도리혀수상함으로리학용은그자를다리고 경관주재소로 갓는바그자는 류치장의 몸이되야취됴를밧는다고한다 ▲인민을 취됴맛나기권에밀하기는어렵지마는 ▲인민을보호하라는 총독부인가란 말부터땡땡한말이지 총독부를 위해서하는일이나 인민을 위해서하는일이나 허다한일에 별놈들다하는청년도잇다

小說 웃고십건 우서라!

【87】 周相 作

一五의二

그이야기는이러하다!

그때 봉천이는 철탕을일허버린것도 분하지만 누구보다도추월색이와 김주사를 혼을내여주려갈줄은 알면서도 경찰서에고발을하얏더니 봉련으로 가는로중에서 붓들려나왓는데 그중의 짝패 한아가 그대감이란자의둘재아들이엇다 그래서 다른사람가트면 물건이야 찻든마든의례히 올가너흘것이로되 량반의집자식이라는 바람에 경찰서에서대감에게로 긔별을하니까 대감말이 일만오천원에서 김가라는자가 가지고먼저 들고튄오천원은 모르겟스나 두놈이쓴돈이천여원이라하니 그반절만 무러줄게 타첩하도록하야달라고 청을하얏다 경찰서에서도 서슬이시퍼런대감의 소청이라 괄시할수업스니 피차간만나서 악희를 지으면무마를하야주마하는고로 봉천이 생각에도 김주사의 오천원과 합하야륙천원가량밧게 손해는업고 또추월색이를 혼줄내이자고 오래비와시 징역사리를식힐수도 업는일이라 그러면 대감인가하고만나서 담판을하고 적어도륙천원의반절만이라도 무른다고 담판을하리라하고 단신으로 차저갓다 그러나 이째에봉천이는 담판을하려간것이 아니라 간천시키려간세음이엇다 앙실로 웁인으리으리한 큰대청에 나와서정중히인사를하고 나더니 이편이말을쓰낼새도업시 변변치못한 자식을두어서 그런데 반면하야폐를끼친게 몹시미안하다고 되집어좋으로 점잔케인사를 하고자초지종을듯더니 그러면 삼천원표를 써서주마고 선듯대답을 하며『내자식이나 남의자식이나 절엇슬째에는 다 一그런것이니 그놈만해두 내가넘어나 엄하게길러서 그러케벗나가고 말앗스니까 말하자면내잘못이지』하며옆웃는것이과연대감답엇다 머리는 반백일망정 례수가크고 키며가후리후리한것이 봉천이눈에도 실로호남자이엇다 다과를 내어노코련해권하면서 세상이약이를,하다가 『남편이 무얼하느냐』는 말에청국에장사하라 가잇다고하니싸반기는듯하며 자긔도 부탁할게잇스니 돌아오거든 좀반나게하야달라하고 나올째에는 안으로돌라오기도하라고 은근히 인사를하얏다 봉선이마음은 흡족하얏다 그리하야 그후에도삼천원일절로여러번 만낫는데 긔한을미루미루하야 사람이 왓다갓다하는동안에 필경은 대감마마님으로 드러안첫다한다 그러나그째에삼천원이고 무엇이고 헐것업시 일만오천원을 다내노아서삽힌문서를 차저주마고 약속한것은 이탈거탈하고 반년이나되도록 아니차저주고 우물거리는것을보고는 또이놈의 늙은이에게쌔앗기나보다 하는념려가 들어서 일시는 헤어지고까지하다가 천신만고를 하고 겨오차저가지고나오랴니까 그럭저럭 일년이나 사랏다한나 봉선이는대강대강 이약이를해들려주고 쯔트로 이런소리를 하얏다

『애귀족인지 무언지다ㅡ쓸데업드라 돈먹으랴고 덤벼든나두 망한년이지만 똑김주사모양으로어벌정하면서제집이라면회人갓을 처먹으랴덤비고 게다가인색하기란 다달히 데어주는시량두 한들만 축이나면 써니가떠러지게 바자워구 생전돈구경이라고는 해볼수업지 귀족이랍시구하는데 드라가서 몸쏭아리나 온전히 건저가지고나오면 요행이지 삼천원표를 선선히써줄때와 쌍문서를 차자다가두고도침을삼키며 숭숭날라가 버좃는것을보아! 엇던째는 얼굴에침을 탁뱃하주고 십드라』하고또술을마시더니

『사년에사만원, 일년에구천원!내몸갑도 금이낫구나』하며봉선이가 자긔자신을 비웃는듯이 니를악물고 입을셀죽하니까

『구천원?……응, 경찰서에서차저온것은 네차지란말이지』하며련화는 부러운듯이 고개를끗덕끗덕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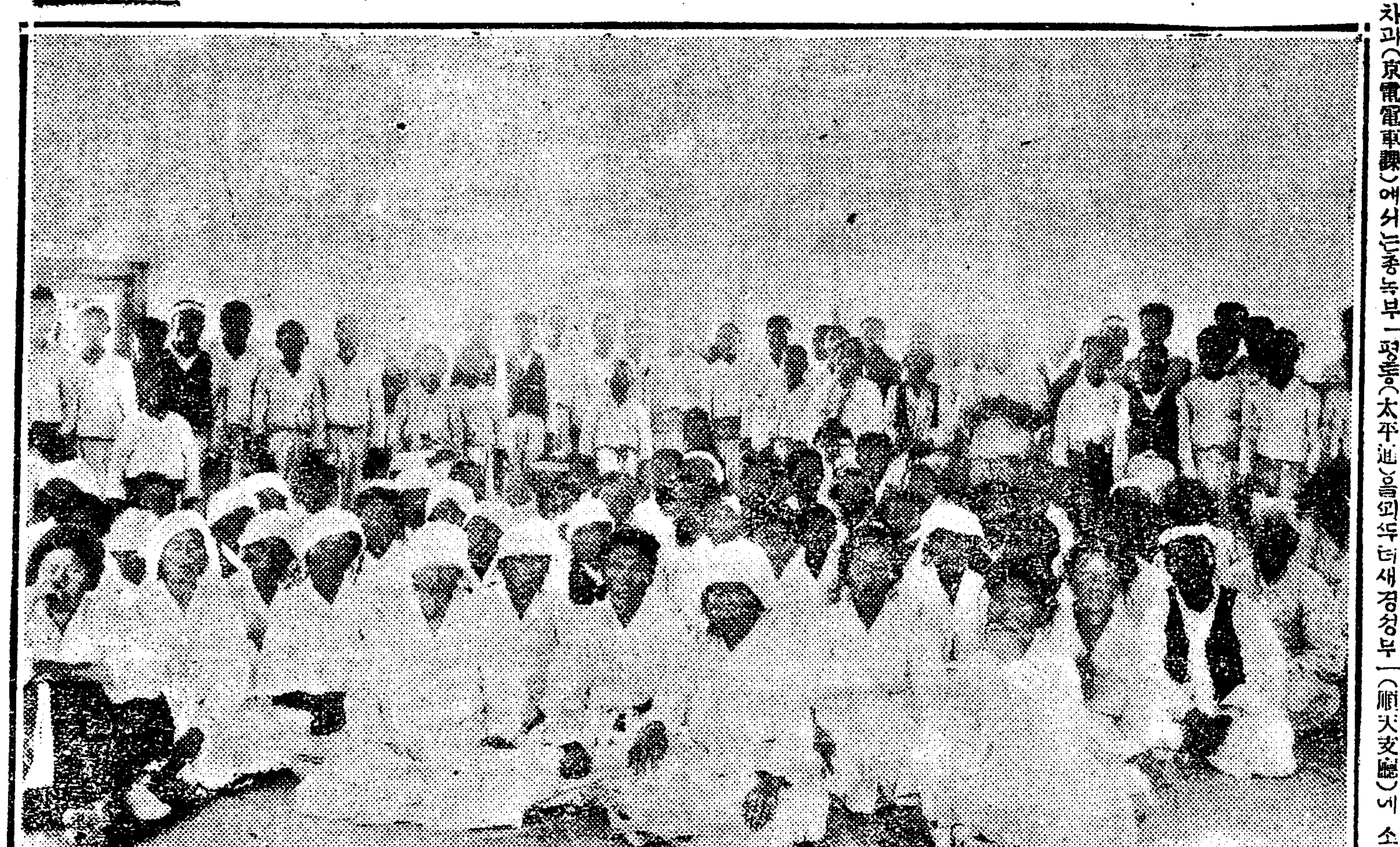
『하지만 최가의사만원이야만코러는것으로 언론을한다면 내가개딸년이지』하고 엇지안흔듯이고개를숙이며 눈물이 글성글성하야지더니

『내가망한년이지!』하며눈물을씻는다

『망한년이될거야 무에잇나비가실허서 벌엇겟니ㅡ자긔가떠더커나간것이 요뵐년이 人해나기다려보다가 죽은것을 알고서난뒤에그러케된건데』

련화는 벙벙히안젓다가 이러케위로를하면서도헤어진지가삼사년이되는 오늘날에도 커러케못니칠것이야 무에잇나십허 몰니어 우숩기도하얏다

『죽어?누가죽어?』



◇…사진설명=도초소작쟁의(都草小作爭議)로구검된사람들내여달라고목포(木浦)에모혀든이백여명의남녀로소…◇

運動競技

遠來의珍客 시카고軍

今朝에京城到着

旣報=日本早大野球團의招聘으로來日한米國『시카고』大學野球團은二週日本關西地方에서大每早大●寶塚軍과예일을마치고二十二日午前十一時半에石井閘一監督引導下에大邱에無事히到着하엿는데大邱驛에出迎한人士는朝鮮體育協會代表에비손氏를爲始하야朝鮮新聞●京城日報와및本社運動部特派員과其外에大邱의西洋人有志들이엇다遠來한『시카고』軍은오히려意氣旺盛하야出迎한有志의歡迎宴에參席한後市內를구경하고午後三時五十分부터大邱軍과의試合을開始하야結局六A對一로시카고軍이大勝하엿는데그成績은別項과갓고同軍은二十三日朝에京城에到着한다(大邱特派員發電)

朝鮮新聞主催 本社後援으로 第一回戰

今日午後四時

訓鍊院球場에서決行

大邱에서大邱軍을餘地업시擊破한球界의霸王시카고軍은二十二日夜에大邱를出發今二十三日朝京城驛에到着하야當日午後四時에同京城朝鮮新聞社主催와本社後援下에京城都愛球家의熱望하는同大學軍과寶塚軍의對抗第一回戰을訓鍊院球場에서開始할터인데當日入場料는普通一圓五十錢●軍人學生一圓이며第二回戰은二十六日午後四時부터亦是訓鍊院球場에서決行할터인데入場料는第一回戰과가트며兩回通用券은二圓五十錢인데球界에잇서서世界的으로霸王의일홈잇는同軍의技術이果然如何할는지매우興味잇는觀戰이라할것이다

對大邱軍成績 八A對一로 시카고軍大勝

시카고軍對大邱軍의對抗戰은二十二日午後三時五十分부터澤田知事의始球와石井順一氏의審判下에大邱先攻으로開戰되엿는데三回까지는兩軍得點이업다가四回부터『시카고』軍이得點하기始作하야四回에二點●五回에二點●六回에一點●七回에二點●八回에一點合計八點을得하엿슴에對하야大邱軍은오즉八回에一點을어덧슬뿐으로結局八A對一로시카고軍이大勝하니때는午後五時半이더라(二十二日午後五時四十分大特派員發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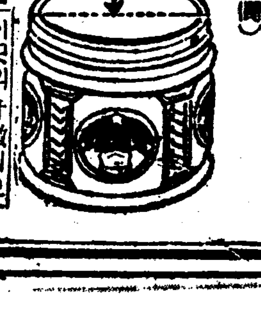
何人이던지할수잇고滋味잇는 구레ー무레ー도 クレームレート懸賞募集 愛用者와販賣店優待

課題

구레ー무레ー도의多年愛用에對하기爲하야其의滋味잇는懸賞募集으로써여러분의게賞品을贈呈하고愛用者優待의實을表하고자하나이다

(一) 구레ー무레ー도의 空瓶利用의經驗(空瓶을무엇에쓰십니까?)
例하면裏그릇毒그릇等과가티經驗이던지考案이던지를아리켜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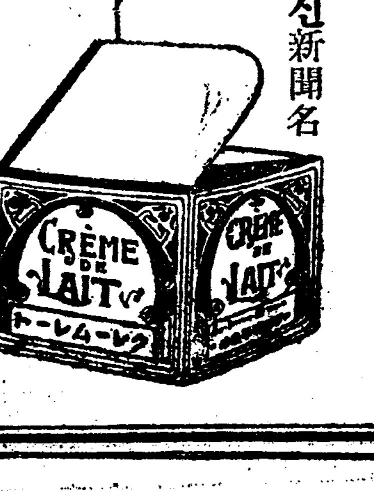
(二) 구레ー무레ー도의 瓶의直經寸法(外圍)
家庭瓶、大瓶、中瓶、小瓶의四種이잇는데큰瓶이는使用이되는데이四種가운데가지고계신엇던瓶이던지關係업습니다
◎但右(一)(二)中엇던것이던지한가지만解答하서도조슴니다



(三) 구레ー무레ー도를 사시는단골販賣店의이름과處所

(四) 이廣告를보신新聞名

御答案은 愛用證으로이箱子의裡面에記入해주십시요。구레ー무레ー도의瓶을집어너흔箱을열고裡面의한ー面에左記의樣式과갓치쓰십시요
◎보내시는方法은開封으로해서二錢切手를붓치십시요(三十匁外지二錢)



箱子속에쓰는 答案쓰는法

(一)……御經驗의一種만을記入
(二)……何尺何分이라記入 曲尺이나鯨尺이나何者라도無妨
(三)……販賣店의名과町名
(四)……新聞名
應募者 住所 氏名
◉御注意……言文一致로明確하게住所는縣郡名을明記入

賞品

一等	金壹千五百圓	金側腕時計一個宛	五拾名
二等	金壹千圓	金蒲鉾指輪一個宛	壹百名
三等	金壹千圓	貯蓄債券一枚宛	貳百名
四等	金五百圓	레ー도進物函一個宛	五百名
五等	金五百圓	레ー도石鹼一個宛	貳千五百名

販賣店의優待

右方法으로愛用者各位로부터店名通知가잇는販賣店諸賢에게도左記의賞金을贈呈하고感謝와優待의微意를表하고자합니다。

賞品
一等 勸業債券(貳拾圓) 拾名
二等 復興債券(拾圓) 五拾名
三等 貯蓄債券(五圓) 壹百名
四等 레ー도石鹼(三個入) 參百四十名
多數한때에는抽籤으로定해서當籤氏名은愛用者當籤氏名發表와同時에發表

◉答案締切 大正十四年十二月十五日
◉當選發表 大正十五年一月下旬
(이新聞紙上으로發表합니다。)
尙案多數한때에는抽籤으로當籤者를定합니다。抽籤은東京小間物化粧品商報社에서記者諸氏立會後에嚴正執行

宛名 東京中央郵便局私書函第五十四號 平尾贊平商店懸賞係